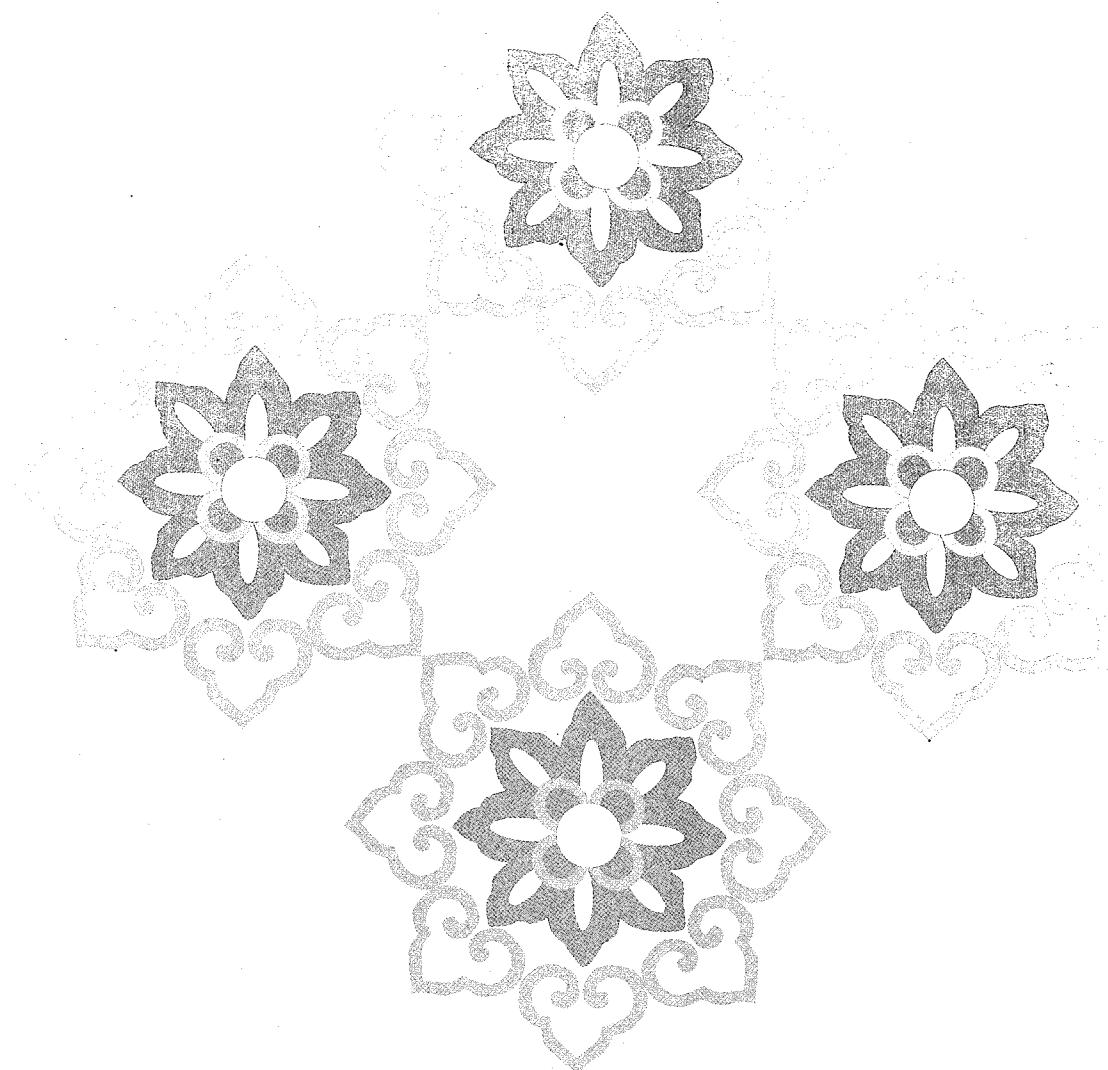


제 1장 고양시의 민속문화 개관



고양시의 민속문화 개관

박 전 열 (중앙대 교수)

민속(民俗)이란 문명국가의 서민사회에 전승되는 기층문화를 가리킨다. 고양시의 민속문화는 고양지역에 살아온 고양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고양의 민속은 이 지역의 고대문화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민속문화는 원시문화나 고대문화와 어느 정도 친근성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고양시의 민속문화는 오늘날 고양시 각 지역에 남아 전해지고 있는 현대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고양시의 민속문화를 포함하여 민속문화에는 두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성격이다. 고양시의 민속문화도 여러 가지 부분문화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 공동체가 구성되며 여러 가지 전통과 풍습을 만들어 오랜 동안 지속해오는 과정에 민속은 서서히 변화하면서 각 시대를 반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시대 이래 서울과 인접한 고양지역은 일찍부터 서울에 산물과 인력을 공급하며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앞서가는 문화로서의 서울의 민속문화가 고양지역에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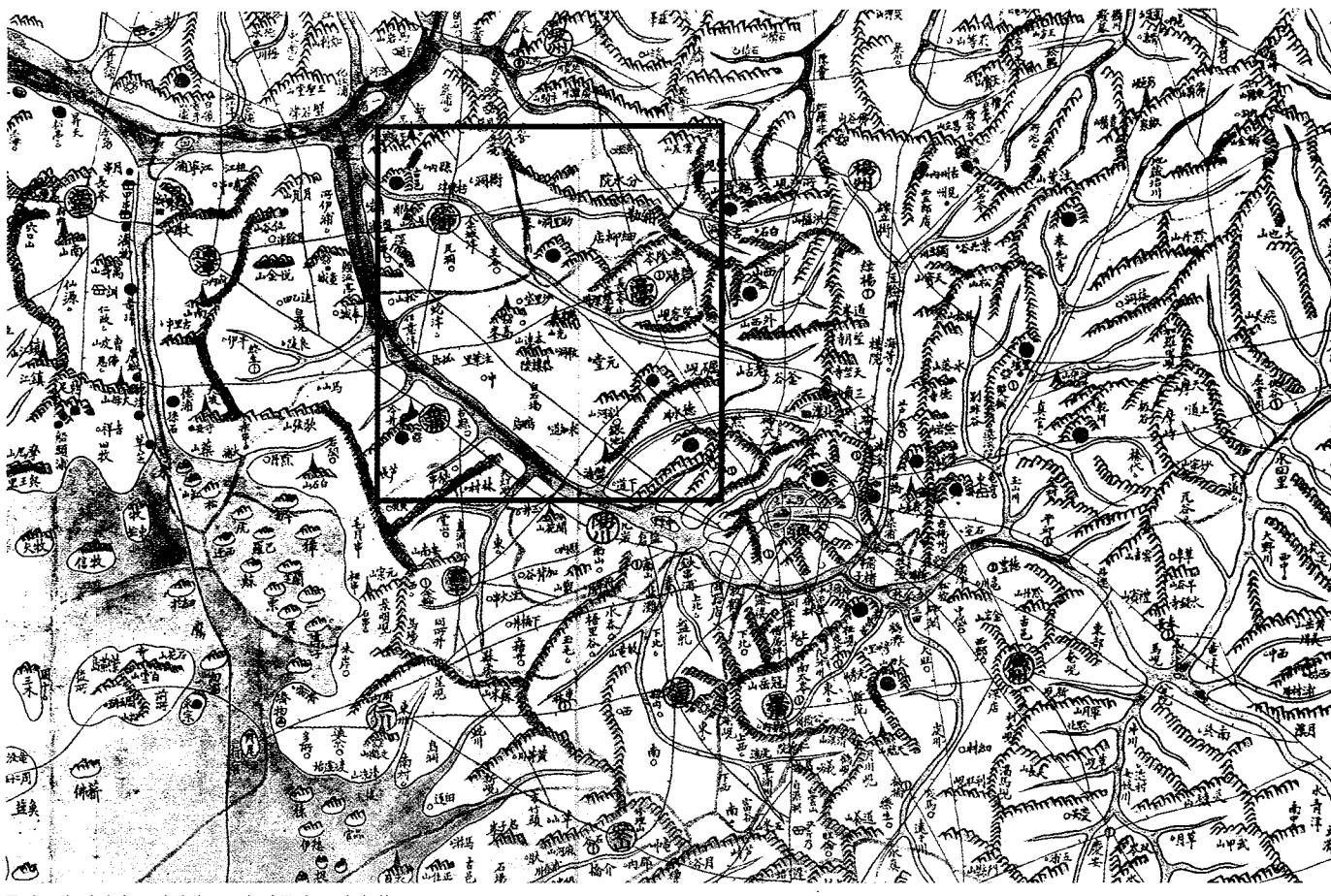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시(市)로써, 동북쪽은 양주군, 동남쪽은 서울특별시,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북쪽은 파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267.31km², 인구는 822,867명(2002년 8월말 현재)이다. 2개 구 35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 소재지는 덕양구 주교동이다.

광주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고양시는 동쪽은 북한산(837m)을 비롯하여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은 낮은 구릉과 하천 퇴적지 평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우암산(329m)이 파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주요 하천은 서남쪽에 한강이 동남~서북향으로 흐르고, 북한산에서 발원한 장릉천은 서남진해 한강에 합류한다. 역시 북한산에서 발원한 곡릉천이 서북진해 파주시로 흘러가며, 곡릉천에서 나뉘어진 원당천은 서남진해 대장천과 합류한 뒤 한강으로 흐른다.

그리고 장월평천이 서남진하여 한강에 합류한다. 서남부는 한강의 범람원으로 넓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창릉천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에는 범람원과 하중도가 발달하였다. 1991년부터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높이 쌓고 신도시개발에 차수한 아래 범람원은 대지로 바뀌었다.

이런 지형적 특성과 조선시대 아래 수도로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의 민속문화가 고양시의 민속문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민속을 서술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의 민속현상이 오늘날의 고양시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양지역은 농촌이었으면서도, 서울지역의 보편적인 민속문화가 많이 남아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여도에 나타난 고양시 (□ 표시 안쪽이 고양지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일산구 백석동과 대화동 일대에서 중기 구석기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최소한 10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화동에서는 4,5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범씨가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의 농경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일산구 지영동·가좌동·지축동·오부자골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됨으로써 고양지역의 문화의 출발이 매우 이른 시기였음이 밝혀졌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12군데에서 발견되고, 벽제·원당·신도·일산지역에서 고인돌·동모주범(銅牟鑄范)·돌도끼·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문봉동이나 신원동에는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사동에서 출토된 동모주범은 고양지역에서 청동기를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게다가 이러한 선사유적들이 창릉천과 곡릉천 등의 작은 하천을 길 마을부근에서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의 영토였다. 그러나 475년(장수왕 63) 남진정책을 편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당함에 따라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고양지역은 고구려 북한산주(北漢山州)의 영현인 달을성현(達乙省縣)에 편입되어, 551년(양원왕 7)까지 76년간 고구려의 남진기지의 구실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신라가 한강유역에 속한 백제의 6군을 점령함으로써, 553년(진흥왕 14) 이후 신라 한양군의 속현인 고봉현(高烽縣)이 되었다.

이에 신라는 한강유역 방위를 위해 신주정(新州停)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양 일대에 북한산성과 행주산성 등을 축성하고, 임진강을 북쪽 경계로 한 북방기지로서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제1장 고양시의 민속문화 개관

고려 초기까지는 고봉현으로 불려오다가, 1018년 양주의 관할이 되었고, 충렬왕 때는 한양부사의 관리를 받아왔다. 1394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서울을 한양부로 하고, 고양시는 고봉현으로 독립되어 현감이 배치되었다. 1413년에는 고봉과 덕양현(德陽縣)을 합쳐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1592년(선조 25)의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참전한 이여송(李如松)은 이듬해에 평양성을 탈환한 뒤 승승장구해 남하하다가 벽제관전투에서 패전하였다. 이때 권율장군이 행주내동의 행주산성에서 기세등등하던 왜병 3만여명을 물리쳐 임진왜란 3대첩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투에서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승리를 돋던 일에 연유하여 행주치마의 어원설이 나왔으며,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행주치마의 본고장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특히 고양시의 정신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심히 싸우던 행주산성 전투에 참가한 남자들은 물론 행주치마에 돌을 싸서 날랐던 여자들의 애국적 기상을 기리며 이를 「행주얼」이라 하여 고양 사람들의 자랑으로 여긴다.



행주얼이 계승되고 있는 행주산성과 행주치마 여인들 (사진제공 : 최준근)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고봉 · 덕양 · 부원 · 황조향 · 율악부곡(栗岳部曲) 등이 폐합되어 고양군으로 불려왔다. 그 뒤 1895년 한성부의 소속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군면폐합으로 한성부로부터 8개 면, 고양군으로부터 1개 면이 편입되었다.

1919년 3월 9일 한지면 보통학교에서 300여 명이, 23일 용강면 관란교(觀瀾橋)에서 500여 명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그 뒤에도 군내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1917년 이후 현재의 판도를 유지하면서 한강 이북에서 서울특별시를 두르고 있는 형상으로 변천되었기에, 근대 이후에도 서울의 민속문화와 고양의 민속문화의 많은 부분이 같은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전후 복구사업으로 회복되었다. 1961년 8월 서울특별시에 있던 군청사를 원당읍 주교리로 옮겼으며, 1967년 3월 28일 신도면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신도면의 구파발리 · 진관내리 · 진관외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원당면이 읍으로, 이듬해 12월 1일에는 중면이 일산읍으로, 벽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군세에 맞추어 행정구역 조정과 변천을 계속하였다. 1989년 서울특별시의 주택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무소가 설치되어 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 2월 1일 비로소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과 동의 신설이 있었다. 1996년 1월 3일에는 일산4동 · 대화동 · 장항2동 · 행신2동이 신설되고, 3월 1일에는 구제가 실시되어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였다.

고양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로 개발이 촉진되어, 대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일반주택과 고층아파트가 대량 건축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접경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발전과 변천을 계속하면서도, 전통적인 민속문화가 잘 전승되고 있으며, 새로운 민속문화도 착착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양시의 중요한 민속놀이로는 호미걸이가 있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두레이자 축제로서, 일산구 대화동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요즈음에는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호미걸이보존회가 활발한 전승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미걸이보존회는 이 밖에도 맹개안 사줄다리기, 12지신 불한당몰이, 용구재 이무기제, 고양 쌍그네놀이 등의 민속예능을 보다 많은 고양시민과 더불어 살아있는 민속으로, 즐기는 민속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호미걸이 악장, 경기잡가 휘모리 등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고양지역에는 각 두레페별로 따로 두레놀이를 즐기는 전통이 있어, 상쇠의 선도로 길균악을 비롯해 열두 가락으로 진행되는 흥겹고 멋있는 놀이를 잘 전승해 왔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널뛰기·연날리기·그네뛰기 등의 세시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산구 마두동의 정발산에서는 3년마다 음력 3월경 마두동·장항동을 비롯한 10개 마을이 함께 산신제를 지낸다. 이 산신제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봉우리 위에서 행해진다. 덕양구의 냉정마을, 가라뫼산, 봉제산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산신제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며 마을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한비탕 축제를 벌이는 좋은 풍습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마을에서 마을의 역사나 풍습에 유래를 둔 제사나 축제를 연다.

고양시에는 많은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행주치마 유래전설이나, 공양왕과 삽살개, 북한동의 노적봉과 밍활머니, 효자동의 박효자, 백석동의 흰돌이야기 등은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드러내는 소중한 설화로써 널리 전승되었다.

고양시의 민속을 총망라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속대관』은 크게 6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의 분류는 학문적 목적이나 편찬의도에 따라서 다른 분류기준을 지니게 되는데, 오늘날의 고양시의 민속을 조사정리하는 과정에 「가족과 마을생활, 생활문화, 민간신앙, 민속예술, 생업과 공동생활」 등의 분야로 나눔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민속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야별로 17명의 민속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고양의 구석구석 민속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원로 여러분으로 구성된 고양시민속대관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내용상의 오류나 심층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었다.

한 시대의 민속문화의 제현상을 정리 기록하는 일은 그 시대의 반성과 충실한 기록의 작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역사와 교훈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755년 영조대의 고양읍지와 1899년에 편찬된 『고양군읍지(高陽郡邑誌)』 이래 1987년에 고양군지 편찬위원회의 노력으로 『고양군지(高陽郡誌)』가 편찬되어, 이 가운데 민속편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인 종합민속지의 편찬은 2002년에 간행하는 『고양시민속대관』이 처음이다. 1990년대에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설과 급격한 문화변동으로 고양시의 민속문화의 조사와 정리는 시기를 놓친 듯한 만시지탄(晚時之嘆)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민속문화의 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생존하여 기꺼이 조사에 응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고양시민속대관』을 낼 수 있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일찍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고양시민속대관』의 간행을 위해 진력해온 고양시와 고양시문화원 여러분의 혜안(慧眼)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